

# 경기일보

파주 통일촌 마을 독일과 DMZ 미래평화 100년 음악교류 나섰다



파주 통일촌마을이 독일 통일 전 서독과 접경지역이었던 옛 동독 휘텐슬레벤 마을과 음악을 통한 교류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장단출장소 앞 광장에서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DMZ, 미래평화 100년 언택트 음악교류를 위한 첫 콘서트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날 독일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레퍼토리인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을 연주했다. 아리랑 공연도 이어졌다.

통일촌마을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이날 공연과 주민들의 영상을 편집, 독일 휘텐슬레벤 마을로 보내 미래평화 100년을 기대하는 두 마을의 우정을 나뉘갈 예정이다. 파주시는 독일 휘텐슬레벤 마을이 제작 중인 답가 영상이 도착하면 이번 비대면 공연을 공동 URL에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통일촌마을은 앞서 지난해부터 휘텐슬레벤 마을과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고 미래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신과 영상을 교류해오고 있다.

박경호 통일촌마을 청년회장은 “독일 휘텐슬레벤마을은 먼저 온 통일을 체험한 마을이다. 한때 분단과 접경지역이라는 처지를 문화로 탈바꿈하는 창조적 파괴를 했다”며 “통일촌마을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질적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DMZ에 울려 퍼지는 'PLZ 페스티벌'...12월까지 5개 평화지역 개최

### 25일 고성 건봉사 오프닝 공연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30여회 열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리는 국제 뮤직페스티벌인 'PLZ 페스티벌'이 지난 25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강원도는 지난 25일 고성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등 평화(접경)지역 5개 군에서 'PLZ(Peace & Life Zon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PLZ 페스티벌은 DMZ를 평화와 생태의 지대로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문화 운동의 하나로, 2019년 시작된 국제문화행사다.

DMZ 지역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재조명하고 문화 공연 취약지역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의를 표명하는 장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25일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 건봉사에서 열린 오프닝 콘서트는 큰 빛줄기 속에 진행됐다.

당시 임미정 예술감독은 "역동적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부각하는 PLZ 페스티벌의 취지가 잘 드러났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공연은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와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주한 루마니아 대사 내외 등 외교 사절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PLZ 페스티벌은 오는 12월 6일까지 30여회의 음악회와 국제 콘퍼런스로 도내 평화지역 5개 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올해 페스티벌은 '소리 안의 소리여'라는 대주제 아래 ▲ 고성(금강산 사는 길) ▲ 인제(꽃과 음악, 그리고 님의 침묵) ▲ 양구(디엠지에서 연주하는 시와 그림) ▲ 화천(디엠지에서 클래식을) ▲ 철원(그대를 위한 영원한 노래)에서 각 소주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음악회는 김다미(바이올린), 박종성(하모니카), 제이피 조프리(반도네온) 뷔에르 앙상블, 임주희(피아노) 탕고 오케스트라 띠에라 등 정상급 연주자부터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속한 드림 워드 앙상블까지 다양하게 참여한다.

# [서울경제]

## [단독] 통일부, 38선에 '평화 메시지' 랜드마크 기념비 세운다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장에 설치  
사업비 2억4,000만원, 이르면 10월 공개  
이인영 장관, 이번 주말 '통일걷기' 행사

통일부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38선 구간 바닥면 57m에 걸쳐 '라인 아트(line art)'를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이 교차하는 부위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세우는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이르면 10월부터 조형물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특히 랜드마크 조형물의 규모를 '기념비적인 스케일'로 조성해달라고 사업자에 제시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장소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현대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성 있는 공간예술작품을 설치해 체험·휴식·놀이가 융복합되는 구심점을 조성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가 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했으며 센터 내 옛 38선이 지나간다. 이 사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기 몇 주 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한편 이 장관은 다음달 1일 강원도 양양의 '38선 휴게소'에서 본인 주최로 열리는 '2020 통일걷기' 행사 출정식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이 장관이 2017년부터 평화·안보·생태를 화두로 매년 열어온 행사다. 조오섭·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38선 휴게소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총 280km 코스다.

이전까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위주로 걷기 코스가 짜였으나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민통선 이남인 38도선 중심으로 코스가 구성됐다. 행사가 끝나는 다음달 11일은 38선이 확정된 날이다. '제2의 38선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일정을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 고성군-남북경문협 간 협약...북한 도시와 교류 '추진'

### 업무협약 첫날, 화성시에 이어 고성군에서 '체결'

강원 고성군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9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고성군과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29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문협이 남·북한 30쌍의 도시 간 '항구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진행된 것으로, 업무협약 첫날 화성시에 이어 고성군과 머리를 맞댔다.

고성군과 경문협은 고성군과 북측 1개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 인도·농업·산림 협력사업을 포함해 고성군의 자원을 이용한 5~10대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업무를 진행할 것 등을 협약했다.

임종석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통일부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경문협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 추진을 계획했다"며 "분단도이자 분단군인 고성군은 앞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부터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해 첫날 고성군에 오게 됐다"고 전했다.

임종석 이사장(사진 왼쪽)과 함명준 고성군수가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이어 "현재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기초생활적인 '인도 협력'부터 농업·산업·의료 등 '필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자는 열망이 있다"며 "국제 정세 등 여건은 엄중하지만, 한숨만 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즐겁게 첫발을 떼는데 의미를 두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안정성"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째를 맞는 고성군은 이번 협약을 누구보다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져 북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함군수는 교류하고 싶은 도시로 "북한의 고성군"을 꼽았다.

고성군이 경문협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북방·평화경제'로 한 발 내디딘 가운데, 과연 남북 간 경색된 관계 속에서 지방도시 간 교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맺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